

우리말 규범의 어제와 오늘

김순녀*

<차 례>

- I. 머리말
- II. 우리말 통일 규범의 필요성
- III. 우리말 통일 규범 역사
- IV. 중국조선어 규범화 문제
- V. 맺음말

I. 머리말

지금 세계에는 수천 종류의 언어가 쓰이고 있다. 그런데 교제의 도구인 언어도 다른 모든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서로 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에 직면하여 사용인구가 적고 사용범위가 좁은 언어는 사라져 가고 사용인구가 많아지거나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언어는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언어문자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민족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민족 언어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는 거족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민족의 언어는 지난날의 비참했던 역사로 말미암아 남북이 분단되고 겨레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면서 세 가지 규범으로 언어문자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하나의

* 연변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hy-kim216@hanmail.net)

언어에서 세 가지 규범이 쓰이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류 역사는 언어의 분화가 민족의 분화를 초래하고 언어의 통일이 민족의 통일을 이루게 됨을 증명하였다. 또한 언어의 통일을 도모하려면 언어의 규범화가 잘 되어야 한다. 하여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자기 나라의 언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언어의 규범화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거기에서 거둔 성과를 사전이나 문법서에 고착시키고 학교교육과 출판물을 통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민족 언어는 제각기 다른 규범을 쓰니 우리 앞에 놓인 선차적인 과업이 우리 언어의 분열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민족 언어의 통일된 규범제정을 거족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민족 언어 규범화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II. 우리말 통일 규범의 필요성

우리말이란 세계의 부동한 지역에서 한국어, 조선어, 고려어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민족의 언어를 가리킨다. 우리민족은 수천 년간 자기 고유의 언어로 민족의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그러다가 19세기 이후 자연재해와 외세의 침략, 특히는 일본의 침략으로 세계의 각지로 흩어져 가면서 지역에 따라 우리의 언어가 한국어, 조선어, 고려어 등으로 불리게 되었고 서로 간에는 이러저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 유럽 각국에서 쓰이는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의 언어가 모두 고대 로마제국이 해체된 이후 라틴어의 방언이 제각기 발전하면서 형성된 언어들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조선어, 고려어 등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말도 만약 서로간의 내왕과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발전하여 간다면 중국에는 부동한 언어로 분화되고 말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민족의 모두가 바라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미연에 방

지하려면 지역 간의 차이를 좁히고 공성을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존재하는 차이를 좁히고 공성을 넓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언어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서는 통일된 언어규범이 제정되어야 한다. 언어규범이란 해당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마땅히 공동으로 준수하여야 할 어음, 어휘, 문법, 철자법 등의 표준과 전범(典範)이다. 언어 규범화는 언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혼란한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 언어발전 법칙에 따라 언어 사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규범을 제정하는 사업이다. 규범화 사업의 구체 내용에는 표준어의 확정, 표준발음법, 철자법, 문장부호법, 외래어표기법 등의 제정, 표준어 사전과 규범문법 편찬 등이 포괄된다. 그런데 표준어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는 방언의 영향, 고어의 영향, 외래어의 영향 및 언어 사용자들의 기호와 언어 수양의 차이로 하여 이리저리한 분기와 혼란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규범화는 개인의 주관적인 호오(好惡)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해야 한다. 특히 표준어를 선택할 때에 이 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표준어는 어느 한 언어의 공통어로 해당 언어의 어느 한 방언을 기초방언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다. 어느 방언을 기초 방언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의 주관적 애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방언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에 있는 방언을 기초방언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언어에 하나의 표준어가 있다. 그러나 개별 언어에는 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어가 있다. 우리 민족의 언어가 바로 이러한 언어이다. 단일 민족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20세기 초엽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을 받으나 외세에 의해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남과 북이 제각기 나라를 세웠다. 그 이후 서로 간의 내왕이 단절되면서 언어 사용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서로 다른 언어규범을 제정하면서 남쪽의 한국은 서울 방언을 표준어로 하여 규범을 하고 북쪽의 조선은 평양방언을 표준어로 하여 규범을 하였다. 그 이후 중국 조선민족도 중국 조선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기초 방언은 제시하지 않은 채 자기의 언어규범을 제정하였다. 이리하여 하나의 동

일한 민족 언어에 세 가지 규범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민족 언어의 건전한 발전에 이롭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류사회의 산생과 함께 산생하고 인류사회의 발전과 함께 발전하여 온 특수한 사회현상으로서의 언어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집단의 분화에 따라 분화되고 통일에 따라 통일되기 때문이다. 우리말의 미래, 더 나아가 우리민족의 운명을 관심하는 사람들은 우리말이 처해 있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역사의 발전은 우리에게 하루 빨리 용단을 내릴 것을 재촉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대의 발전에 따라 부동한 언어들 사이의 생존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세계에는 수천 가지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사이의 생존 경쟁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언어 사이에서 진행되는 생존 경쟁의 기본 법칙은 사용 인구가 많고 사용 범위가 넓은 언어가 생존하고 사용 인구가 적고 사용 범위가 좁은 언어가 사멸되는 것이다. 사용 인구의 확충과 사용 범위의 확대 여부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나 국가의 경제력과 과학기술의 발전 여부와 정비례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와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나 지역의 언어는 배우려는 사람이 많고 사용되는 면이 넓어지고,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뒤진 나라나 지역의 언어는 배우려는 사람이 적고 사용되는 범위가 좁아진다. 이는 사회 발전이 언어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다. 반면에 언어의 발전이 사회의 수용에 영향을 주게 된다. 모든 언어는 해당 언어를 쓰는 사회집단 성원들에 의해 약정(約定)된 부호체계이므로 일정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교제의 도구이다. 이는 사회성원들에 의해 약정된 법률과 비슷하다. 사회성원들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 그것을 제정한 사회성원들을 구속하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되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성원들에 의해 약정된 언어의 규칙과 규범이 사람들의 언어행위를 제약하고 간섭하게 된다. 이 같이 일정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 언어들 사이에는 계통에 따르는 차이, 형태에 따르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심도의 차이, 규범이 잘 된 언어와 잘 되지 못한 언어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연구가

깊고 규범이 잘된 언어는 그렇지 못한 언어에 비해 배우기 쉽고 쓰기 편리하다. 그러나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는 사용자가 이러한 두 가지 언어 가운데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경우 자연스럽게 규범이 잘 된 언어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언어 자체의 연구 및 규범화의 정도가 사용 인구의 확충과 사용 범위의 확대에 영향 주게 됨을 의미한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말을 사용하는 인구는 7800여만 명으로 사용 인구의 순위에 따르면 15위 안에 속하는 언어이다. 그러나 사용 범위의 중요성에 따르면 2007년 9월 한국어가 국제특허조약 국제공개어로 채택되면서 세계의 10대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한국어, 포르투갈어)의 하나로 되었다. 이는 목전 단계에서 우리말의 국제적 지위가 낮지 않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사용 인구가 일억 명도 안 되고, 게다가 앞으로도 지금까지 세 가지 규범이 지속되면서 통일된 규범을 제정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국제적 지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말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용 인구의 저변을 늘려 나가려면 부단히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경제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하루 빨리 통일된 언어 규범을 제정하고 참담게 연구하여 우리민족 언어로 하여금 보다 더 배우기 쉽고 쓰기에 편리한 세련된 언어로 되게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상술한 과제의 완수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쓰이는 우리말 규범화의 노정을 더듬어보면서 우리말 규범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주지하다시피 언어규범화는 언어 자체의 변화와는 달리 언어에 대한 인위적인 간섭이므로 일반적으로 정부의 행정권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회활동이다. 때문에 나라마다 행정권으로 자기 나라의 언어정책과 언어 규범을 제정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말 규범화는 부동한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만큼 특정된 나라에서의 행정권에 의한 규범화와는 달리 협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우리말 규범에서 나타난 차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북의 분단으로 하여 나타난 것으로 거기에는 시대적, 지역적 문제들이 존재해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통일된 규범을 제정하기 어

려울 것이라 사료된다.

Ⅲ. 우리말 통일 규범 역사

현대 우리말은 20세기 초엽에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 시기 대한민국의 국운이 쇠하면서 한반도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되었다. 그 결과 1910년 한일합방으로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갖 형성된 현대 우리말은 건전한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20세기 초엽 우리말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방언을 기초로 하여 발전하고 통일되어 가고 있었으나 서사규범과 어휘규범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그 후 민족적 양심이 있는 학자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1930년대에 우리말 규범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1936년의 《조선어표준말 모음》이 그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말은 통일되고 규범화된 언어로 되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표기법, 문장부호 등으로 우리말 표기법 전반에 대해 규범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 표준어에 대한 규정도 지었는데 “대체로 현대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반포는 우리말 발전 역사의 획기적인 사변으로 현대 우리말의 건전한 발전에 튼튼한 기초를 닦아놓았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맞춤법은 재래의 표음주의 표기법을 형태주의 표기법으로 전환시켜 놓음으로써 현행맞춤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그 이후 1937년과 1940년에 개정이 있었으나 개별 단어의 표기와 사잇소리 표기에 약간한 변화가 있었다.

1945년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후 우리말도 한국어와 조선어로 분화되어 각기 자기의 발전법칙에 따라 발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남과 북의 규범도 달라지고 어휘사용에서도 차이가 나게 되었다. 1970년대에 중국에서 쓰이는 조선어도 자체의 규범을 제정하면서 지금 세계에는

세 개 나라가 우리말 규범을 제정하여 쓰고 있다. 1945년 분단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남과 북 및 중국에서의 우리말 규범의 변천 역사를 고찰하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1. 한국에서의 한국어 규범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분 내용을 보충 수정하여 쓰다가 1988년에 국정(國定) 《표준어 사정 원칙》,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을 공표하면서 50여년 만에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였다. 한국어규범의 변천을 사항별로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1) 표준어 기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표준어 기준을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 두 기준을 대비해 보면 “표준말”이 “표준어”로 바뀌고, “중류사회”가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뀌고, “현재”가 “현대”로 바뀌었다. 이 두 기준에서 서울말을 기초방언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표현형식에서 모호했던 “중류사회”를 다른 나라들의 경향도 감안하여 “교양 있는 사람들”로 고치고, 한자어와 고유어를 결합시킨 말 “표준말”을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된 “표준어”로 고침으로써 어감이 더 좋아지게 하였다. “현재”를 “현대”로 고친 것은 역사학적 시대 구분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2) 한글 전용

우리민족의 문자 사용 역사를 돌이켜 보면 삼국시기부터 19세기 말까지 한자, 한문이 국가의 공식적인 서사어로 쓰여왔다. 비록 1443년에 우리의 문자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으나 그것이 국가의 공식적인 서사어로 쓰이지 못하였다. 19세기 말 반봉건적 민족운동과 애국적 계몽운동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서사어로의 교체 편리를 도모할 요구가 높아지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895년 한국정부에서 “법률명령은 다 국문으로써 근본을 삼고 한역(漢譯)을 부(附)하며 혹 국한문을 혼용함”이라는 국한문을 혼용할 데 관한 법령을 반포하였다. 이리하여 한글이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서사어로 되었다. 분단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줄곧 국한문을 혼용해 오다가 1968년 10월 대통령의 한글전용 지시에 따라 《한글전용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글전용 사업을 추진시켰다. 일 년 간의 노력을 거쳐 《한글전용 편람》을 내오고 1970년 1월 1일부터 모든 문서에 한글을 전용하고 3월부터 학교 교과서에서 한자사용을 폐지하였다.

3)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은 한글로 한국어 표준어를 적는 표기법으로 이를 “철자법” 또는 “정서법”이라고도 한다. 한국어 맞춤법은 역사적으로 1930년 이전과 이후로 대별된다. 1930년 이전의 철자법은 표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1930년에 제정한 철자법은 형태주의(일부에서는 “표의주의”라고도 한다)를 기본원칙으로 하였는데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보다 더 형태주의 원칙이 강조되었다.

분단 이후 한국에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를 수정하여 쓰다가 1988년에 새로운 《한글 맞춤법》을 제정하였다. 반세기 동안의 수정과정을 보면 1957년에 한글학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하고 1969년 문교부에서 인명, 지명, 숫자 표기법을 개정하였다. 그 후

1973년에 국어심의회에서 《개정 한글 맞춤법》을 제정하였으나 여러 해 동안 시행이 보류되었다. 이것을 1977년에 다시 심의하여 1978년에 《한글 맞춤법 개정시안》을 내놓았다. 이것이 수정을 거쳐 1979년 8월에는 《맞춤법 수정안》, 1979년 11월에 최종 《맞춤법안》으로 되어 참고용이란 조건부로 발표되었으므로 구속력을 가진 규정으로는 되지 못하였다. 그 이후 1988년에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한글 맞춤법》이 제정되었는데 형태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4)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로 제정된 단어들에 대한 발음규칙이다. 표준 발음법의 제정은 표준어로 제정된 단어들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발음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표준발음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사전에 따라 발음 표기가 상이하였다. 1988년에 제정된 《한글 맞춤법》에서 처음으로 표준 발음법을 제정하였다.

5)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란 다른 언어에서 받아들인 말이다. 지금 일부에서는 외래어와 외국어로 갈라서 외래어는 다른 나라 말에서 들어와 그 나라 말로 된 단어를 가리키고 외국어는 다른 나라 말을 가리키고 있다. 여기에서 이르는 외국어의 개념이 단일 민족 국가에서는 별다른 모순이 없으나 다민족 국가에서는 외국어라는 개념을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중국에는 56개 민족의 언어가 있다. 한국이나 조선에서 중국어를 차용할 때 중국어를 외국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중국 조선민족이 중국어를 차용해 쓸 때 이를 외국어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므로 외국어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든지 아니면 외래어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든지 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외래어 표기법이란 다른 언어를 표

기하는 규칙이다.

한국어 최초의 외래어 표기법은 1941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이다. 한국에서는 이 표기법을 써오다가 1952년에 《들어온 말 적기법》을 제정하고 1956년에 《외국 인명 지명 표기법》을 제정하였으나 실시가 보류되었다. 그 후 1958년에 한국 문교부에서 《로마자자의 한글화 표기법》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69년에 문교부에서 《외래어 한글 표기법》을 제정하였으나 문혀버리고 말았고 또 10년 뒤인 1979년에 《외래어 표기법 개정 시안》이 나왔으나 공포가 보류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서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가 촉진제가 되어 1986년 《외래어 표기법》이 공포되었다.

6)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이란 한국어를 로마자로 적는 규범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쉽게 읽게 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일찍 1940년도에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하였다. 한국에서는 분단 이후 이 안을 써오다가 1948년에 한국정부에서 조선어학회안을 개정하여 《한글을 로마자로 적는 법》으로 발표하였다. 이것이 최초의 한국 정부 규범으로 된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이다. 이 규범이 1959년에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개정되었다. 이 규정에 존재하는 문제점으로 하여 70년대에 여러 차례의 심의를 거쳐 1979년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안》이 완성되었으나 공포가 보류되어 시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그 후 올림픽의 개최로 말미암아 1979년도 안을 수정하여 1984년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공포되었다. 그런데 1984년도에 제정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쓰기가 불편한 문제들이 존재하여 국립국어 연구원에서 2000년도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다시 개정하였다.

7) 어휘규범

한국에서의 어휘규범은 국어순화(國語醇化)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일본어 잔재의 일소, 고루한 한자어와 생소한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국어순화 사업은 일찍 4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8.15 직후부터 시작된 일본어 잔재의 일소가 1948년의 《우리말 도로 찾기》에 내놓은 순화어 942개로 결실을 보았으나 정리해 놓은 단어들의 정착률은 높지 못하였다. 이 시기 일본어 순화의 대상은 일본어 어휘와 일본식 한자어였다. 그런데 어느 것이 순수한 일본식 한자어인가 하는 문제가 명확히 밝혀지지 못하였다. 그 이후 정부 차원에서 1962년에 한글 전용 특별 심의회가 발족하여 1970년 1월 1일부터 한글 전용을 실시하고, 1976년에 외래어의 남용을 배제하기 위해 대통령의 지시로 국어순화협의회가 발족하여 《국어 순화 자료》 등을 통하여 국어 순화 사업을 추진시키었다. 1991년에 국어 심의회(1953년 문교부 안에 설치된 기구) 국어순화 분과위원회가 나와 지금까지 한국어 순화운동을 하고 있다. 순화의 대상에는 큰 변화가 없고 그 전에 비해 전문용어에 대한 규범이 중시되고 있다.

2. 조선에서의 조선어 규범

조선에서의 언어규범화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1945년 이후 조선에서 진행된 서사규범화 사업의 역사를 크게 아래의 네 개 단계로 나누고 있다.

1) 첫 번째 단계(1945년부터 1954년까지)

이 시기 조선에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 준하여 언어생활을 하던 데로부터 점차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2) 두 번째 단계(1955년부터 1966년까지).

이 시기 조선에서는 1954년에 제정된 《조선어철자법》에 기초하여 언어생활을 하면서 문화어규범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나온 주요한 성과로는 1955년에 제정한 《조선어외래어표기법》과 1966년에 제정한 《조선말규범집》이다.

《조선어외래어표기법》은 조선에서 제정한 최초의 외래어 표기법으로 크게 세 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첫째 부분이 《조선어외래어표기법》이고, 둘째 부분이 《외국자모에 의한 조선어표기법》이며, 셋째 부분이 《조선어어음 전사법》이다. 그런데 이 표기법이 대상하는 언어의 수는 러시아어와 국제음성기호에 국한되어 있다.

《조선말규범집》은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표준발음법으로 구성되었다. 이 규범집에서 제정한 발음규범을 정하는 기본원칙은 “표준 발음법은 현대조선말의 여러 발음들 가운데에서 조선말 발달에 맞는 것을 가려잡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 규범과 1954년도 규범을 대비해 보면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가 “조선말 발달에 맞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새롭게 변화된 말을 표준으로 하게 됨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범집에서는 한자말 표기를 단독적인 장으로 설정하여 한자 본 음대로 적기로 하였고 표준발음에서도 어두에서의 “ㄴ, ㄹ”을 표기대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 세 번째 단계(1967년부터 1980년까지)

이 시기의 주요한 성과로는 문법규범의 확립과 외국말 적기법의 규범이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법규범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1972년에 《문화어문법규범(초고)》가 나오고 1976년에 《조선문화어문법규범》이 완성되었다. 이 문법규범에서는 조선어 품사와 토를 새롭게 규범화하였는데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8품사로 규범하고 종래에 독자적인 품사로 인정하던 상징사를 부사에 포함시켰

다. 토는 격토, 복수토, 맺음토, 이음토, 엮음토, 꾸밈토, 바꿈토, 상토, 존경토, 시간토, 토움토 등 11개 갈래로 나누었는데 상토, 바꿈토, 꾸밈토는 새롭게 독자적인 토로 분류되었다. 이 가운데의 상토는 접사로 취급되던 것을 토로 다루었다. 1969년에 나온 《외국말적기법》은 1955년의 《조선어외래어표기법》을 수정하였는데 주요한 차이는 표기대상이 “외래어”로부터 “외국말”로 바뀌고 대상하는 언어수가 1955년도 《조선어외래어표기법》에서 제정한 2개에서 7개로 늘어났다.

4) 네 번째 단계(1981년 이후)

이 시기 조선에서는 평양말을 기초로 한 조선의 문화어가 완전히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나온 주요한 성과로는 《조선말규범집》(1988)과 《외국말적기법》(1982)이다. 《조선말규범집》은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문화어발음법으로 되어 재래의 규범집에서 “표준발음법”이라고 하던 것을 “문화어발음법”이라고 하여 문화어가 형성되었음을 밝히었다. “문화어발음법”의 총칙에서는 “조선말발음은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토대로 하여 이룩된 문화어의 발음에 기초한다”고 평양말을 문화어의 기초방언으로 함을 명백히 규정하였다. 그리고 자음자 “ㅇ”의 이름을 재래의 규범에서 “이응”, “으”라고 부르던 것을 “이응”, “응”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개별 단어의 표기와 발음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외국말적기법》은 1969년도의 《외국말적기법》보다 대상하는 언어의 수가 18개로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조선 국어사정위원회에서는 1988년도 규범집의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2000년에 《조선말 띄어쓰기규범》을 발표하였다.

이 기간 조선에서의 어휘규범은 크게 두 개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1945년부터 1963년까지 진행된 언어정화운동이고 두 번째 단계는 1964년부터 진행되어 온 어휘정리운동이다.

언어정화운동의 임무는 인민대중이 이해하기 힘든 한자어, 일제통치 시기에 우리말에 끼어든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말 찌꺼기, 외래어를 고유

어로 다듬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언어정화운동의 주요대상으로 되는 것이 한자어와 외래어이고 정리의 범위에는 일상용어와 학술용어가 다 망라되었다. 언어정화운동에서 달성한 주요한 성과의 첫째는 한자 사용이 폐지된 것, 둘째는 우리말에서 쓰이던 일본말 단어와 일본말 한자어를 제거한 것, 셋째는 알기 어려운 한자어 사용이 제한된 것, 넷째는 우리말에서 남용되던 불필요한 외래어가 사라진 것 등이다. 특히 한자어나 외래어로 쓰이던 많은 학술용어가 고유어로 정화되었다. 그 결과 인민대중의 문화지식 향상과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살리는데 유리하게 되었다.

어휘정리운동은 1964년 1월 3일 김일성의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의 교시로부터 시작되었다. 같은 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직속으로 국어사정위원회가 나와 어휘정리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66년 5월 14일 김일성의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 나갈 데 대하여》가 어휘정리 사업의 전환점으로 되었다. 어휘정리의 대상의 첫째는 새로 나오는 단어로, 새로 나오는 단어는 고유어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둘째는 한자어로, 재래의 한자어에서 이미 굳어진 것은 그대로 쓰고 새로운 중국식 한자어는 다듬어 쓰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본식 한자어는 무조건 고치기로 하였다. 셋째는 방언어휘로, 방언어휘에서 좋은 것을 찾아내어 쓰도록 하였다. 넷째는 학술용어로, 학술용어에서는 한자어를 제한하고 고유어를 살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섯째는 외래어로, 이미 오래 동안 씌었고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것은 그대로 쓰고 새것은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도록 하였다. 여섯째는 지명으로, 한자어 지명을 고유어로 바꾸는 것이다. 일곱째는 군사용어로, 군사용어는 당장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형편을 고려하여 고치도록 하였다.

어휘정리 사업의 기본원칙은 과학성과 대중성으로 하고 기본방법의 첫째는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지상토론을 벌리는 것이고, 둘째는 섬멸전의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셋째는 정리와 보급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같이 진행된 어휘정리가 20년간의 노력을 거쳐 5만개에 달하는 단어를 정리하였다. 그런데 정리된 5만개 단어 가운데

데에서 절반이 1986년에 발표된 《다듬은 말》과 1992년에 발표된 《조선말대사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는 정리된 한자어나 외래어 단어의 절반이 환원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주요 원인은 이미 굳어진 말까지 쓸데 없이 풀어쓰다 보니 뜻이 모호하고 어색하게 되자 원래의 말로 환원시키게 되었다고 느껴진다.

3. 중국에서의 조선어 규범

중국 조선어는 중국 조선민족의 형성과 함께 형성되고 발전과 함께 발전하여 온 언어이다. 중국의 조선민족은 19세기 후반, 두만강과 압록강 동남쪽의 한반도로부터 이재민들이 살길을 찾아 중국의 동북지역으로 이주하면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일제통치시기 한반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주하면서 동북 전역에 널리 분포되었다. 일제 통치 시기 중국 조선민족의 문화중심이 길림성 동북부에 위치한 용정이었다. 이 지역 조선민족의 대부분이 함경북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으므로 한반도 동북방언이 중국조선어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었는바 사실상에서는 중국조선어의 기초방언으로 되었다. 거기에 한국의 표준어, 조선의 문화어, 중국의 한어 등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여 온 것이 바로 중국조선어이다.

중국조선어가 발전하여 온 역사는 순탄하지 않았다. 1940년 말까지는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서사생활을 하였으므로 한국이나 조선의 규범과 같았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1950년대 후반기부터 중국조선어는 점차 중국의 사회 환경과 정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중국어의 영향을 심히 받으며 건전하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해방초기인 1950년대 상반기에는 중국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자들이 비교적 건전하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1957년부터 20여 년 간 좌경 정치노선의 착오로 소수민족들의 언어문자 발전에 심한 타격을 받았다. 이 시기 중국에서 실시한 민족정책은 매우 그릇되었는데 사회주의 시

기는 민족들이 융합되는 시기라고 하면서 소수민족들에게 자기의 언어문자를 포기하고 한어와 한문을 쓸 것을 강요하였다. 1958년 4월 북경에서 소집된 제2차 전국 민족어문 학술회의에서 이른바 정풍(整風)의 방법으로 소수민족 어문사업에서의 자산계급 개인주의와 민족주의 사상을 비판하고 착오적인 정책들을 제정하였다. 1960년대 초에 이러한 그릇된 노선과 정책들이 약간의 시정을 가져오다가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으로 하여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이 기간 좌경 정치노선은 민족 언어문자의 “낙후론”, “무용론”을 주창하면서 동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조선민족은 불요불굴의 정신으로 자기의 언어문자를 수호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해방 이후 중국조선어가 부딪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휘규범이다. 중국조선어는 중국의 공통어인 중국어와 병존하면서 발전하게 되는 것만큼 중국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언어발전의 객관법칙에 맞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조선어가 어떻게 중국어 단어를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중국조선어는 마땅히 자기의 언어발전 법칙에 맞게 중국어 단어를 받아들여 사용하면서 자기의 언어를 풍부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시기 좌경 정치노선의 팽박으로 이른바 중국 조선어와 중국어 사이의 공통성분을 증가시키기 위해 중국에서 나온 새로운 단어들을 중국어 발음 그대로 차용해 쓰거나, 조선어에서 쓰이는 기존의 단어가 있음에도 쓰지 않고 새로운 한자어를 만들어 쓰는 것으로 조선어의 순결성을 잃게 하거나 단어사용에서의 혼란을 조성하는 현상이 매우 엄중하였다. 예를 들면 “페니실린”을 “칭메이수(青霉素)”로, “출근”을 “쌍발(上班)”로, “노동자”를 “공인(工人)”으로, “시험”을 “고사(考試)”로 바꿔 쓰는 것 등이다. 물론 새로 생겨난 단어들 가운데에는 중국의 새로운 제도, 새로운 사물을 나타내는 단어들도 있다. 예를 들면 “생산대(生產隊)”, “인민대표(人民代表)”, “자치주(自治州)” 등이다. 이러한 단어들은 기존의 단어들을 이용하여 새롭게 만든 단어들로 한국어 어휘 구성의 법칙에도 맞고 이해에도 어려움이 없어 쉽게 보급된다.

중국조선어의 규범화 사업은 크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첫 번째 단계(1950년 이전 시기)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이전, 중국조선어의 규범은 1933년에 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중국조선어는 서울말을 표준어로 하였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규범을 지키었다.

2) 두 번째 단계(1950부터 1977년까지)

이 시기는 중국조선어가 조선의 규범을 따르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 중국조선어는 형성과정에 있는 조선의 문화어를 표준어로 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조선의 규범들을 기본으로 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조선의 1954년 《조선어철자법》을 따랐고 1970년대에는 조선의 1966년도 규범을 따랐다. 어휘사용은 조선에서 나온 《조선어소사전》(1954), 《조선말사전》(1960~1962)에 준하면서 새로 나온 한자어들을 규범하기 위해 1966년 3월에 《조선어명사, 술어규범화잠정방안》(초안)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70년에 중국에서 자체의 띄어쓰기를 제정하였으나 기본상 조선의 규정을 따랐다.

3) 세 번째 단계(1977년부터 현재까지)

이 시기는 기본적으로 자체로 규범을 제정하여 쓰는 시기이다. 1977년 국무원의 결정에 의해 동북삼성 조선어문 사업 협의소조가 건립되면서부터 중국조선어는 자체로 규범을 제정하게 되었다. 1977년에 나온 《조선말규범집》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제정한 조선말표준발음법, 조선말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이 나왔다. 그 후 1978년에 《조선말 명사, 술어규범화원칙》, 1990년에 《외래어 표기법》과 《다듬은 말 처리세칙》, 1991년에 《방언어휘 사정원칙》 등의 규범들을 제정하였다.

세 나라 규범의 차이로 하여 일부 단어들의 맞춤법이나 발음법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고 문법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맞춤법에서 한국어에서는 표음주의원칙으로 표기하는 것을 조선과 중국에서는 형태주의원칙으로 표기하여 차이가 났다. 예를 들면 한국의 “알따랴다”를 조선과 중국에서는 “얹다랴다”로 표기한다. 발음법에서 한자어 “법률(法律)”을 한국에서는 “법률”로 발음하고 조선에서는 “법률”로 발음하며 중국에서는 “법률”과 “법률” 두 가지 발음을 다 허용하고 있다. 세 나라의 규범 문법에서도 문법체계로부터 문법용어, 문법개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조선과 중국에서는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토”라고 하나 한국에서는 조사와 어미로 나누고 조사를 단어의 일종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차이들은 교제에 불필요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가 언어 사이의 접촉 및 변화에 영향 주게 되는 것은 언어 발전의 객관법칙이다. 중국조선어의 발전도 이러한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의 1960여 년 간 중국조선어는 한반도 남과 북의 언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여 왔다. 1949년부터 1990년 사이의 40여 년 간 중국과 조선 사이에는 교류가 있었으나 한국과는 교류는 없었다. 이로 인하여 중국조선어가 조선에서 쓰이는 조선어의 영향은 받았으나 한국에서 쓰이는 한국어의 영향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1992년 한중 두 나라가 수교한 이후의 근 20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어 두 나라 사이의 교류가 많아지고 중국조선민족과 한국인들 사이의 인적내왕이 빈번해지나 조선과의 인적내왕이 적어지었다. 한중 두 나라 사이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중국조선어가 점차 한국에서 쓰이는 한국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조선에서 쓰이는 조선어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 이리하여 지금 중국조선어의 규범화가 사실상 혼란한 상태에 처해 있다. 그 구체 표현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에서 진행되는 조선어 교육에서 중국의 규범과 한국의 규범이 공존하고 있다. 지금 중국에서의 조선어 교육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중국조선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모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타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교육이다. 중국조선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모국어 교육에서는 중국조선어 규범을 따르

고 있다. 그러나 타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교육에서는 한국어 규범에 따라 편찬한 도서 자료들을 쓰고 있다.

둘째, 지금 중국의 많은 지역의 서점들에서 조선문 도서들이 팔리고 있는데 이 중에는 중국의 규범에 따라 편집된 것, 한국의 규범에 따라 편집된 것, 조선의 규범에 따라 편집된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한국의 규범에 따라 출판된 책들이 제일 많다.

셋째, 인터넷에서도 중국, 한국, 조선 세 나라의 규범으로 된 자료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영향력이 제일 큰 것이 한국의 규범으로 편집된 자료들이다.

넷째, 유치원으로부터 중학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의 청소년 학생들의 과외 독서 책들 가운데에서 한국의 규범으로 편집된 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중국의 규범으로 편집된 책이다.

다섯째, 일부분 조선문 신문의 기사, 또는 조선어 방송 프로들에서 한국의 규범에 맞는 말이나 외래어를 쓰고 한자를 혼용하여 쓰기도 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중국의 조선어에서는 중국, 한국, 조선 세 나라의 규범이 공존해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한국어규범이 중국조선어에 제일 강하게 영향 주고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중국조선어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중국조선어 서사규범을 새롭게 개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목전의 상황에서 한국어의 규범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중국조선어 규범의 혼란은 피면할 수 없다. 그것은 중국조선어가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한국어 규범의 영향을 배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중국에서는 중국의 조선어규범과 한국의 한국어규범 두 가지 어문규범이 공존하면서 혼용되고 있고, 어휘사용에서도 한국어의 영향이 많아지고, 서체도 한국의 서체가 많이 쓰이고 있다.

IV. 중국조선어 규범화 문제

위에서 우리는 중국조선어 규범화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대처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체로 아래의 몇 가지 해법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금의 규범을 개정하여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는 방법.

둘째, 한국이나 조선의 규범을 따르는 방법.

셋째, 한국과 조선이 합의하여 제정한 통일규범을 수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다 이폐(利弊)가 있고 목전의 혼란을 피면할 수 없다.

첫째 방법은 자주적인 규범을 사용하는 길이다. 중국에서 자주적인 우리말 규범의 사용은 중국이 쇄국정책을 실시하는 조건에서는 가능하다. 개혁개방 이전 한국과의 교류가 없었기에 한국어가 중국조선어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특히 한중 수교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한국어가 중국조선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교육은 전적으로 한국의 규범을 따르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말을 배우는 목적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직하거나 한국과의 교류를 위한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의 영향을 배제하고 중국조선어의 자주적인 규범을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방법은 한국이나 조선 가운데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다. 지금 한국과 조선 두 나라 가운데에서 중국조선족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한국문화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할 때 한국의 규범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중국조선어 규범이 혼란을 피면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규범이 완전무결한 규범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른바 두 음법칙이 과연 과학적인 표기법인가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대중국어 표기를 한국의 표기 방법대로 할 경우 중국조선어가 부딪치게

될 새로운 혼란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한자와 한자어는 오랫동안 우리 언어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현대 중국어의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들을 현대중국어의 발음대로 표기하는 문제가 앞으로 우리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겠는가는 참답게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중국 조선어의 경우 일찍 20세기 50년대 말에 이른바 소수민족언어가 통용어인 중국어와의 공동 성분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좌경노선의 영향으로 많은 중국어 단어를 우리말 한자음으로가 아니라 중국어발음대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大字報”를 “따즈보”로, “專家”를 “쥘자”로 표기하였다. 결과 우리말에 중국어식 단어가 범람하게 되었고 우리말 한자음으로 표기한 단어와 중국어발음으로 표기한 단어가 공존하면서(예를 들면 위의 “大字報”를 “따즈보”와 “대자보”로의 표기) 교제에 혼란을 조성하였고 우리말이 자기의 민족적 특성을 잃어가게 하였다. 만약 중국에서 이러한 역사가 재연된다면 중국조선어는 쉽게 중국어에 동화되고 말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 방법을 채용할 경우 통일 규범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사이에 혼란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혼란을 감수하는 문제는 불가피함은 이미 기성사실로 되었으니 좀 더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아니 될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과 조선의 통일규범이 언제 이루어지겠는가를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하루 빨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말 통일규범 제정이 우리민족의 존망과 관계되는 대사임을 인식시키는데 있다고 느껴진다. 주지하다시피 언어는 사회의 상부구조도 아니고 하부구조도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사회의 특정된 정치세력이나 사회집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언어를 쓰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제의 도구이고 인지(認知)의 도구이다. 그리고 모든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정신적 상징물로 거대한 응집력을 갖고 있으며 선명한 민족적 특성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우리민족 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위해서는 누구나 다 우리말 통일규범 제정에 일조해야 한다.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말 통일규범은 행정권으로가 아니라 협상의 방법으로만이 이룰 수 있다. 또한 우리

민족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간에 양보하고 배려하는 정신을 발휘하여 하루 속히 통일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만약 한반도의 남과 북이 이러한 정신이 없이 자기의 것만을 고집한다면 우리민족의 언어는 생사존망의 기로에서 허덕이게 될 수도 있다.

통일규범의 제정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이미 여러 해 동안 ‘겨레말 큰 사전’ 편찬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어 자모배열순서, 띄어쓰기, 문장부호, 품사분류, 형태표기 등에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과 북이 좀 더 노력한다면 꼭 훌륭한 성과를 거두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통일규범 제정에서 제일 큰 걸림돌은 남과 북이 아직 협의를 보지 못한 부분인 사잇소리 표기와 두음 법칙이다.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믿는다. 이러한 취지에서 아래에 이 두 문제에 대해 토론하려 한다.

1. 사잇소리 표기 문제

우리말에는 두 개의 형태소나 단어가 어울려 합성 명사를 이룰 때 그 사이에 ㄷ 소리가 생기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두 개의 형태소 사이에 ㄴ 또는 ㄴㄴ가 덧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사잇소리라 한다. 예를 들면 “아래 + 방”, “밭 + 일”, “아래 + 이(齒)”의 발음은 “아래뽕”, “반닐”, “아렌니”이다. 이러한 사잇소리를 한국에서는 사이시옷 [시]나 자음 [ㄴ]을 첨가하여 표기하고 조선에서는 일부 단어만 사이시옷 [시]를 첨가하여 표기하고 있다. 우리말에서의 사잇소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으로 마땅히 정확히 발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잇소리 표기법이 잘 연구되어야 한다. 사잇소리 표기가 우리말 교수, 특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매우 필요하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어음교수에서 학습자들에게 장악시키기 어려운 것이 우리말 발음법이다. 학습자들이 위에서 예로 든 단어에 사잇소리 표기를 하지 않으면 표기대로 “아래방”,

“바틸”, “아래이”로 발음한다.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장악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어음의 첨가와 경음화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말은 중국어보다 자음으로 끝나는 받침소리의 종류가 많고 이로 하여 나타나는 어음변화도 다양하다. 경음화만 하여도 여섯 가지의 경우가 있고 음의 첨가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어음변화에도 예외적인 현상도 많아 우리말을 모국어로 하고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복잡한 어음변화를 이해하고 장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초학자들에게 이 같이 복잡한 어음변화법칙을 이해시키고 장악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사실상 어음변화는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언어실천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쓰면서 정확히 발음하도록 습관화 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초학자들에게 일정한 기간 부호로 발음표기를 하여 주어 정확히 발음하는 습관을 양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방법은 옛날에 쓰던 사이시옷 [시]이나 사잇소리 부호 [']을 이용하거나 다른 특수한 새로운 부호로 경음화와 음의 첨가를 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음화 표기

- ㄱ. 국스밥/국'밥, 옷스고름/옷'고름, 옆스집/옆'집
- ㄴ. 신스고/신'고, 앉스고/앉'고, 삼스고/삼'고, 젊스고/젊'고
- ㄷ. 뉘스게/뉘'게, 활스다/활'다,
- ㄹ. 갈스등/갈'등, 물스질/물'질, 말스전/말'전
- ㄹ. 할스것을/할'것을, 갈스곳/갈'곳, 만날스사람/만날'사람
- ㅂ. 눈스동자/눈'동자, 길스가/길'가, 술스잔/술'잔, 성스격/성'격, 정신스병/정신'병, 삼스권/삼'권

음의 첨가 표기

- ㄱ. 솜스이불/솜'이불, 내복스약/내복'약, 한스여름/한'여름, 답스요/답'요, 국민스윤리/국민'윤리
- ㄴ. 냇가, 뱃속, 햇살
 콧날, 뱃머리
 나뭇스잎/나뭇'잎, 뒷스웃/뒷'웃

이 같이 사이시옷이나 사잇소리 부호로 경음화와 음의 첨가를 표시해 주고, 그 뒤에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하고, 모음이 올 때에는 [ㄴ]을 첨가 시키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고 발음할 수 있다.

이 같이 [ㅅ]이나 [ʃ]를 이용하여 사잇소리를 표기하는 방법이 발음훈련에 매우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말에서 사잇소리 표기는 유지되어야 하고 타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교육에서는 일정 기간 경음화표기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두음법칙 문제

이른바 두음법칙이란 어두에 어떤 음을 분포시키지 않는다는 규칙으로 알타이제어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일컬어 왔다. 한국에서는 한국어 어두에 구개음화된 [ㄴ]과 [ㄹ]이 오지 못한다고 하여 한자어 “녀자”를 “여자”로, “력사”를 “역사”로, “리치”를 “이치”로, “래일”을 “내일”로 표기한다. 이 두음법칙이 과연 한국어 고유어의 법칙인가 하는데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일찍 15세기 훈민정음 창제시기에 어두에 [ㄹ]이 쓰인 단어 “러울(너구리)”을 비롯하여 그 뒤의 문헌에 “라귀(당나귀), 로어(농어), 루르다(누르다), 류리(유리), 료화(여뀌꽃)” 등이 쓰이었고, “녀기대(여기다), 녀느(다른 사람), 녀다(가다), 녀름(여름), 녀름 짓다(농사 짓다), 녀넝(열), 녀넝다(넝다), 녀넝춧(땀 줄)” 등과 같이 구개음화된 [ㄴ]도 어두에서 쓰이었다.

이른바 두음법칙으로 말미암아 제기되는 주요한 문제는 아래의 두 가지이다.

1) 두음법칙으로 하여 한자음표기에 혼란이 생겼다

한자는 3천여 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로 수천 년이 지나도록 자형은 변하지 않았으나 한어의 변화에 따라 글자의 발음이 달라지었다. 즉 꼭 같은 한자라 하여도 상고시기의 발음, 중고시기의 발음, 근대 시기의 발

음, 현대의 발음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한자 “甲”자가 한어 상고한어에서는 [keap]으로 발음되었으나 중고한어에서는 [kap]으로 발음되고 현대한어에서는 [tɕia]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한자를 차용해 쓴 언어에서 한어의 어느 시기에 차용하였는가에 따라 꼭 같은 한자라고 하더라도 발음이 다르게 된다. 예하면 위의 “甲”을 우리말에서는 [갑]이라 하고 일본어에서는 [kou]라 하니 우리말의 [갑]은 중고음과 대응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말 한자음은 일찍 상고한어의 한자음에 기초하여 형성되었으나 통일 신라시기에 이르러 중고한어의 음으로 규범화하여 오늘까지 쓰이고 있다. 우리말 한자음의 특성의 하나는 그것이 고도로 통일되고 규범화되었다는 것이다. 15세기 훈민정음이 창제되던 시기에 전통적으로 써내려오던 우리말 한자음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동국정운을 편찬하고 한자음 교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는 이 시기에 중국의 한어가 이미 근대한어로 변하여 한자들의 음이 중고의 음과 달라졌기에 우리말 한자음도 변화된 한어의 음을 따르려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의 중고한어의 음에 기초하여 형성된 우리말 한자음이 수백 년 간 사용되면서 굳어졌기 때문이다. 이 같이 수백 년 간 온고하게 쓰여오던 우리말 한자음이 두음법칙으로 하여 인위적인 한자음이 생겨나면서 한자음 표기에 혼란이 생겼다.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으로의 표기가 기본 원칙이나 역사적으로 하나의 글자가 두 가지 이상의 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 두음법칙으로 하여 나타나는 우리말 한자음의 이중성은 전적으로 인위적인 것으로 아래와 같은 40여 개의 음절이다.

낙(造)→약, 녀(女)→여, 년(年)→연, 념(涅)→열, 념(念)→염, 념(寧)→영, 념(禰)→예, 뇨(尿)→요, 뉴(紐)→유, 늑(惡)→육

라(羅)→나, 락(落)→낙, 란(蘭)→난, 랄(刺)→날, 람(藍)→남, 랍(拉)→납, 랑(浪)→낭, 래(來)→내, 랭(冷)→냉, 략(略)→약, 량(量)→양, 려(旅)→여, 력(力)→역, 런(連)→연, 렐(列)→열, 렴(廉)→염, 렴(獵)→염, 령(零)→영, 례(禮)→예, 로(勞)→노, 록(綠)→녹, 론(論)→논, 룡(弄)→농, 료(牢)→뇨, 료(料)→요, 룡(龍)→룡, 루(淚)→누, 류(類)→유, 륜(六)→육, 룬(倫)→윤, 른(律)→율, 룡(隆)→용, 른(勒)→늑, 룡(凜)→늑, 룡(陵)→능, 리(李)→

이, 린(隣)→인, 림(林)→임, 립(立)→입

이상의 음절의 한자가 들어가 이루어진 한자어 가운데에서 해당 한자가 어두에 놓일 때에는 화살표 오른쪽의 음으로 표기하고, 어두가 아닌 위치에 놓일 때에는 화살표 왼쪽의 한자의 원음대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女”가 “女子”의 경우에는 인위적인 음[여]를 써 “여자”라 표기하고, “男女”의 경우에는 [남녀]로 “女”자의 원음 [녀]로 표기한다. 이로 하여 하나의 한자를 두 가지 음으로 읽게 되었다.

2) 외래어 표기에서는 두음법칙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

모든 법칙은 객관사물에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두음법칙은 그러하지 않다. 우리말 어휘는 기원적으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뉘고 있다. 다른 언어에는 고유어와 외래어로 이분하지만 우리말에서는 사실상 다 같은 외래어에 속하는 한자어와 외래어를 둘로 나누어 놓고 있는데 그 원인은 한자어가 우리말에서 차지하는 비례가 높고 그 자체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르는 두음법칙이 한자어표기에서는 준수되고 외래어 표기에서는 준수되지 않고 있다. 즉 한자어에는 이른바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인위적인 한자음까지 만들어 쓰고 있으나 영어, 프랑스어 등의 언어에서 차용한 외래어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아 “뉴스, 니코틴, 라디오, 랑데부, 램프, 리더, 링게르” 등과 같이 두음법칙에 배치되는 단어들이 수두룩하게 쓰이고 있다.

우리가 한발 물러서서 우리말에 확실히 두음법칙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대의 발전에 따라 파괴되어 언중(言衆)이 구개음화된 어두의 [ㄴ], [ㄹ]을 무난히 발음한다면 기존의 법칙도 변하여야 한다. 지금 외래어 표기에서 구개음화된 [ㄴ], [ㄹ]을 그대로 표기하고 있고 이를 젊은 이들에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무난히 발음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른바 한국어 두음법칙이 그 자체의 기능을 상실하였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법칙이 파괴되면서 새로운 표기법이 생기는 것은 언어발전의 필연적 법칙

으로 우리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모음조화는 우리말 고유의 법칙이었으나 모음 [·]의 소실로 모음조화법칙이 파괴되고 비조화적인 표기가 쓰이게 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부단히 발전하기에 영구불변의 법칙이나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도 다른 사물과 마찬가지로 부단히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회적 현상이다. 때문에 언어의 모든 규범도 인간 사회의 모든 규범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존재이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규범이 언어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더는 적용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두음법칙이 외래어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 법칙이 이미 그 자체의 기능을 상실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니 이미 기능을 상실한 두음법칙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말 발전에 이로운 것이 아니라 사료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우리말 통일규범에서 사잇소리표기는 보존하면서 타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교육에서는 어떻게 학습자들에게 이를 더 잘 이해시키고 장악하게 할 것인가를 연구할 것이 기대되고 반면에 이른바 두음법칙은 폐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된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말 규범의 역사와 규범화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말 통일규범 제정은 우리민족의 통일성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60여 년 간 우리는 민족분열의 슬픔과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끼었다. 만약 이러한 역사가 지속되어 간다면 영구 분열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말의 동질성 확보와 민족문화 창달의 대의를 위해서는 온 겨레가 정치나 종교의 이념을 떠나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민족은 자기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으로 일찍부터 중국문화의 영향을 심하게 받으면서도 자기의 언어와 문화를 고스란히 지켜왔고, 일제의 야만적인 동화정책 속에서도 피어린 투쟁으로 자기의 언어와 문화를 굳게 지켜온 슬기로운 민족이다. 이렇듯 자랑찬 민족이 자체의 분열로 하여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잃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우리 언어의 분열을 막고 통일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민족 언어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유일정확한 길임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몇 년간 남과 북의 학자들이 겨레말 사전 편찬을 위해 사심 없는 노력을 기울이었고 기꺼운 성과도 많이 거두었으나 이러저러한 애로로 하여 편찬 사업이 지체되고 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언어는 그 언어를 쓰는 사회적 성원들에 의해 약속되어진 사회적 현상이다. 이는 언어의 제 규범들이 인위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통일규범의 제정을 위해서는 자기의 규범만을 고집하지 말고 양보를 앞세우고 상대를 배려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이 바로 자기의 규범이라는 작은 것을 잃고 우리말의 통일이라는 큰 것을 얻는 과정임을 누구나 다 명심하기 바란다.*

* 본 논문은 2011. 6. 30. 투고되었으며, 2011. 7. 15. 심사가 시작되어 2011. 7.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민수(2007) 『현대어문정책론』, 한국문화사.
- 문교부 편(1988), 『국어어문규정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고려대학교 편(1979), 『한국문화사대계(9)』.
- 최윤갑(1998), 『조선어 한국어 연구』, 홍문각.
- 최윤갑(1994), 『중국 조선-한국에서의 조선어 차이 연구』, 연변인민출판사.
- 최희수(200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제 문제”, 순천향대 『인문과학논총』(제22집).
- 홍윤표(2009), “중국조선어 규범화 문제에 대한 단상(강연원고)”.
- 沈 陽(2007), 『語言學常識十五講』, 北京大學出版社.
- 王 力(2004), 『漢語史稿』, 中華書局.
-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편(2007), 『조선말규범집』, 연변인민출판사.
- 김민수(2007), 『현대어문정책론』, 한국문화사.
- 김순녀(2009), “중국의 한국어교재편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순천향대 『인문과학논총』(제24집).
- 박제호(1996), “주체의 조선어학발전 50년”, 『언어규범』, 평양출판사.
- 권승모(1996), “주체의 조선어학발전 50년”, 『조선로동당의 언어정책과 그 빛나는 실현』, 평양출판사.
- 김영황(2009), “주체의 언어 연구 50년”, 조선 사회과학출판사.

<초록>

우리말 규범의 어제와 오늘

김순녀

본 논문은 우리말 규범화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논문이다. 논문은 모두 세 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논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말이 부동한 언어들 사이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통일규범이 제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1945년 이후 한국, 조선, 중국 세 나라에서 진행한 우리말 규범화의 역사를 회고하고 한중수교 이후 중국조선어가 받는 한국어의 영향 및 이로 하여 중국조선어 규범화에서 나타난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중국의 조선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교육에서는 중국의 규범을 적용하고 타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로서의 우리말 교육에서는 한국어 규범을 적용하면서 중국조선어의 규범이 혼란스러워지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중국조선어 규범화가 나아갈 길에는 첫째,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는 길, 둘째, 한국이나 조선의 규범을 따르는 길, 셋째, 한국과 조선이 합의하여 제정한 통일규범을 수용하는 길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중국조선어가 세 번째 길을 택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통일규범 제정에서 해결해야 할 사잇소리 표기와 두음법칙에 대한 견해를 제기하였다.

끝으로 반만년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말의 동질성 확보와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서는 남과 북에서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하루 빨리 우리말 통일규범이 제정되도록 힘써주기를 바랐다.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의 언어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 컴퓨터 언어처리 모형의 기본 원리 역시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핵심어】 우리말, 규범화, 중국조선어, 통일규범, 한국, 조선

<Abstract>

Standardization of Korean : Past, Present and Future

Jin-shunnv

This paper gives a historical review of various issues brought up in standardization of Korean language. It consists three parts. First, it points out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standardization of Korean language. The second part review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n standardization i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respectively since 1945 and points out the problems raised in standardization of Korean language used in China. Confusion is mainly caused by applying two different kinds of Korean standardization : one for Korean Chinese which follows Chinese standardization and another one for Korean education targeted foreigners who study Korean. The third part gives the possible solutions, which is either regulating a new way of standardizing, or adopting either South Korean or North Korean standardization, or a unified way neutralizing the standardization of Korean language used in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is paper argues that Korean standardization should adopt the third proposal ; it also brings up two key issues that need to be solved in this new proposal. At the end, the author urges scholars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to speed up the process of Korean standardization with the spirit of mutual understanding for the sake of ensuring the identity of Korean language as well as further cultivation of Korean culture.

[Key words] Korean standardization, Korean language in China, South Korea, North Korea